

# 홍천시니어신문

행복한 어르신! 가고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

2025년 1월 (제128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 법인 소식

### 2024년 제10회 홍천군사회복지인의 밤



2024년 12월 13일(금),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2024년 제10회 홍천군 사회복지인의 밤’ 행사가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15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회복지 종사자, 봉사자, 후원자 등 이른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회복지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홍천군종합사회복

지관, 홍천군사회복지대학총동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신영재 홍천군수와 박영록 군의회 의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시상식과 함께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중한 연대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소식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2024년 노인자원봉사단 평가회’ 개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회장 이형주)는 12월 12일(목), 홍천군 노인대학실에서 ‘2024년 노인자원봉사단 평가회’를 개최했다.

홍천군지회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14개의 노인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열린 평가회에는 각 봉사단의 단장들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2025년의 봉사활동의 개선된 방향을 모색했다.

이형주 회장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금,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어른다움의 표현이며, 사회의 참된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며, 노인들의 봉사 정신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 CONTENTS



- 01 - 법인 소식,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소식
- 02 - 복지관 소식
- 03 - 생활 경제
- 04 - 지역 소식 (1)
- 05 - 지역 소식 (2)
- 06 - 지역 탐방
- 07 - 지역 행사, 문화 탐방 (1)
- 08 - 문화 탐방 (2)
- 09 - 인물 탐방 (1)
- 10 - 인물 탐방 (2)
- 11 - 노년기 삶
- 12 - 인생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노인복지관

**복지관 소식**

**2024년 사업별 평가회 진행**



2024년 12월, 홍천군복지관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한 10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사업별 평가회를 진행했다. 각 사업의 담당자와 참여자들이 참석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점을 논의하며 내년도 계획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각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피

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2024년 사업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년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쿨한 1학기 개강**



홍천군복지관은 2025년 1월 6일을 시작으로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여능활동, 세대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홍천읍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코어요가, 생활영어 등 5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북방면 복지관은 정리수납 자격 과정과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등

총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년사회화교육은 노년층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2025년 복지관 돌봄서비스 신청자 모집**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가 되어 어르신들의 병원을 동행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관련문의** 033-430-8753

**신청방법** 일주일 전부터 사전예약 가능 / 월~금 09~18시

구분	본인부담금 (시간당)	추가 30분당	교통비
일반	5,000원	1,500원	이용자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원	500원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열악, 거동 불편, 도움 없이 목욕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게 목욕 차량이 방문하여 무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신청방법** 유선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관련문의** 북방고령자복지주택 내 2층 사무실 / 033-430-8650~8752

홍천군복지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시작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53명이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 매니저가 어르신의 자택에서부터 병원에서의 모든 과정을 돕고 귀가를 지원하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병원 접수, 진료, 수납, 약품 수령 등 병원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하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에도 병원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홍천군노인복지관(033-430-8743)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 내 목욕시설이 없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목욕시설이 완비된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안부 확인, 말벗 등의 정서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홍천군에 주소 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그리고 목욕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홍천군노인복지관(033-430-8750-87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생활 경제

# 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도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제도로 인해 올해 어떤 것이 변경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25년 1월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로 최종 신고하면 된다. 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는 모두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초과 시는 공제 비율 30%인 체크카드 사용
- 전통시장 50% 공제 및 문화비 40% 공제, 대중교통 80% 공제

## 2.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및 손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대

## 3.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4.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총급여액 8,000만 원으로 상향, 월세액의 15~17%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 원 공제 확대
- 주택청약 납입액 300만 원으로 상향

##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 연말정산 정정 신고 제도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연말정산 정정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착오로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받았거나, 소득 공제 항목 누락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정정 신고를 통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고 가산금을 낼 부분을 정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 •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잘못된 소득 정보나 공제 정보 입력 시
2.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 변경 시
3.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서류 누락 시
4. 기타 자료 제출 오류 또는 누락 시

### • 정정 신고 절차

1. 정정 사유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
2.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정정신고서 작성
3. 정정신고서 제출 및 결과 확인

### • 정정 신고 시 주의 사항

1. 마감 기한 준수
2. 정정 신고한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
3. 정확한 정보 입력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 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세수 확보로 지역 재정 확보 및 주민 편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부 효능감 제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히는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되므로 소비 진작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에서도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 기부 참여 이벤트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부금으로 홍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NAVER INFLUENCE

#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 10만원까지 전액, 3만원 추가 답례품까지?

지역 소식 (1)

#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디지털 혁명



〈노인지도자 통합 연찬회 스마트 기기 사용법 강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 놀이를 하거나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단순한 여가 활동을 즐기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로당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종합 경제 뉴스 미디어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 지역 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도입되었으며, 2021년 첫 번째로 시작되어 지난해 13개 지자체에서 889개의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었다.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목표는 기존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 통신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하고 어르신들에게 여가 활동, 복지,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 스마트 경로당의 효능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진보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화상 플랫폼이나 헬스 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은 더 많은 활동을 즐기고 배우는 동시에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혈압, 체온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강 관리 키오스크, 체성분 측정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측정된 결과는 어

르신들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도 공유된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건강 상담사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 최운 대표는 “경로당을 스마트하게 변신시켜 고령화 사회 속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편타당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홍천군 스마트 경로당

홍천군은 스마트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9개소와 읍면 경로당에 55대의 스마트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홍천군은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5일, 홍천군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가 주관한 ‘제19회 홍천군 노인지도자 통합 연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 등 약 450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홍천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스마트 경로당이 홍천군에 더욱 확산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스마트 경로당 - 희망리 경로당〉

지역 소식 (2)

# 북방면 화계초등학교, 저출산 시대의 교육적 도전과 꿈을 키우다



<화계초등학교 전경>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화계초등학교에서 안보영 교장을 만나 북방면의 유일한 학교인 화계초등학교의 학생 수 현황과 교육 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저출산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지방 학교가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화계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 꿈, 보람, 감동이 있는 화계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는 현재 14명의 교사와 전교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터와 정원을 비롯하여 자연을 벗할 수 있는 숲과 텃밭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버스 3대를 운행하여 등하교를 돕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계초등학교는 꿈, 보람, 감동이 있는 학교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꿈이 있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음악적 꿈을 심어주기 위해 1인 1악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교실이 운영된다. 또한, 무료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



<안보영 교장>

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보람이 있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절별 특기 신장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동이 있는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기관 및 축제 참여,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 저출산 시대, 학생 감소에 대한 대책

2024년 화계초등학교 졸업생은 8명이고, 2025

년에 입학 학생은 10명 정도이다. 지역 몇 개의 분교는 오래전에 폐교되었고, 마지막 남은 대룡분교가 2명의 학생을 끝으로 2025년도에 본교로 통폐합되었다. 이로써 화계초등학교는 북방면의 하나뿐인 유일한 학교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과밀한 흥천읍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선생님의 집중적인 관심 아래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화계초등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 안보영 교장은 “올해 대룡분교 통폐합 경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일본 여행의 계획을 구상 중이며, 앞으로도 바르고 건강하며 지혜로운 학생을 배출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화계초등학교는 저출산 문제와 학생 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음악 교육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은 단순히 학교 내 교육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도전과 열정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금순 기자

(sang2062@naver.com)

**지역 탐방**

# 화촌면 장평1리 청사초롱 마을 전통혼례식 한마당 축제



〈마을 안 청사초롱〉

예로부터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전통적인 주례사 의식이 간소화되고 결혼식 자체가 간편해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청사초롱 마을에서는 전통혼례식이 거행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오랫동안 혼인 신고만 하고 예식을 올리지 못한 이웃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려는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

### 청사초롱 마을

청사초롱 마을은 화촌면 장평1리에 있는 마을로, 135세대 2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장님 말에 따르면 그 중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은 50명뿐이고, 대부분은 귀농·귀촌한 외지인들이라고 한다.

마을 곳곳에는 청사초롱이 설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오후 6시가 되면 마을 곳곳에서 불을 밝힌 청사초롱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큰 볼거리가 된다.

마을에서는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부녀회 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었다. 홍천군의 지원

을 받아 1,500주의 수익형 돌배나무를 심으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마을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 전통혼례의 배경

매년 청사초롱 마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한마음 축제’ 기간 동안 전통혼례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준비부터 진행, 홍보, 식사 등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추진했다. 혼례를 올릴 부부는 마을에서 신중하게 물색한 끝에 김성희·이명숙 부부가 선정되었다. 이 부부는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주민들 마음 속에는 그들을 위한 결혼식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 전통혼례의 진행 과정

전통혼례 준비는 서울과 홍천 읍내에서 구한 당나귀를 시작으로, 가마, 나무지개, 낫쇠요강 등 필요한 준비물과 혼인 행렬할 인원 배정까지 철저히 이루어졌다. 거례선언 이후, 5세 쌍둥이가 선두에서 청사초롱을 들고 행진을 이끌었다. 그 뒤를 이어 신랑과 당나귀, 신부가 탄 가마가 차례대로 행진했고, 여러 전통 의식이 진행된 후 성혼선포가 있었다. 그 후에는 첫날밤의 신랑 달기와 함께 밤의 축제가 계속되었다.



〈전통혼례식〉

이 전통혼례의 기획과 진행은 이정근 이장이 맡았으며, 홍천군민은 물론 춘천과 서울에서 찾아온 이들도 함께 참여해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특히, 군수와 군의장은 가마꾼과 도우미로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혼례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도 특별한 정성이 담겼다. 혼례음식은 신랑과 신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풍요로운 잔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동네 주부들은 전통 방식으로 솥뚜껑에 전을 부치고, 남자들은 떡메로 흰 찰떡을 만들어 음식을 준비했다.

최근 결혼식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기보다는 축의금만 내는 경우가 흔해졌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물질 중심의 결혼식 문화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부분의 하객이 끝까지 동참해 축하하는 이 문화는 신구 문화 간의 간극을 분명히 느끼게 한다. 이렇게 흥미롭고 의미 깊은 전통혼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이정근 이장과의 인터뷰 좌측〉

지역 행사

# 1·3세대 화합 도모를 위한 세대공감 떡 만들기

2024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갈등과 단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부모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위원장 김옥순)와 영유아분과(분과장 홍신옥)는 2024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세대공감 떡 만들기' 체험 행사를 기획하여, 고령화 사회 속에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되었으며, 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12개의 경로당을 선정하고, 각 경로당에는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은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음식의 맛과 의미를 배우고, 고령자들은 어린이들의 밝은 에너지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노래를 어르신들 앞에서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고, 어르신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진2리 경로당에서는 강릉사 유치원 아이들의 악기 연주로 '아버이 은혜'를 들으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희망2리 경로당에서는 무궁화 어린이집 아이들이 떡과 식혜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며,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흥천읍분회(회장 현종길)에서도 참석하여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세대 공감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소통의 프로그램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대공감 떡 만들기' 행사처럼, 지속적인 세대 간 교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선숙 기자  
(ds2sia@hanmail.net)

문화 탐방 (1)

# 잊혀가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흥천군 두촌면 장남리 삼층 석탑)

2024년 11월 2일, 흥천군 두촌면 장남리의 삼층 석탑을 찾았다. 석탑은 크지 않지만, 불안정한 바닥 돌이 위태로움을 더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 1984년 6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자료 제13호로 지정된 이 석탑은 오래된 흔적을 간직한 채 방치된 듯한 인상을 준다.

석탑의 기단은 흩어져 있던 여러 부분을 모아 다시 쌓은 것이다. 각 층의 기단과 몸돌, 지붕돌이 순차적으로 옮겨져 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단의 각 면에는 불교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둥근 장식인 안상이 새겨져 있으며, 두툼한 지붕돌의 각 귀퉁이는 위로 향하고, 그 밑면에는 2단의 받침이 있어 안정감을 더한다. 하지만 3층 지붕돌의 상륜부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다.

고려 중기 이후 강원 영서 지역의 석탑들은 대부분 몸돌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지만, 장남리 석탑은 몸돌과 지붕돌이 따로 쌓여 있어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또한 각 층에 2단의 받침을 두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엿보이는 귀한 사례로, 그 자체로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장님에 의하면, 석탑은 옛 절터에서 폐사된 후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절의 이름이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왜 이 석탑이 이곳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석탑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장님은 "바닥 돌을 튼튼한 돌로 바꾸어 석탑을 오랫동안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석탑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석탑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전해진다.

이 석탑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한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바닥 돌을 교체하고 석탑을 바로 세운다면, 이 탑은 앞으로도 세월을 견디며 본래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김화영 기자  
(kimhy45021@daum.net)



문화 탐방 (2)

# 홍천 수타사 (壽陀寺) 조형물의 역사와 예술

수타사는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공작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홍천의 9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통일 신라 성덕왕 7년(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라는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 사찰 주변은 동용공작(東翁孔雀), 서치우적(西馳牛迹), 남횡비룡(南橫飛龍), 북류용담(北流龍潭)의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 울창한 숲과 기암 절벽이 어우러지며, 맑은 계곡물 소리가 청량하고, 상쾌한 공기 덕에 산소길로 유명하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도 불교 문화유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다양한 조형물은 단순한 미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닌 유산들로 평가된다.

**대적광전 - [보물]**



대적광전은 수타사의 주 불전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고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가 재건했으며, 1683년(숙종 9)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기단, 지붕, 몸체가 잘 조화되어 절제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특히 용마루 한가운데에 청기와 2개가 있어 왕실에서 내린 의미가 있다. 대적광전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24년 2월 28일 보물로 승격되었다.

**봉황문, 사천왕상 - [보물]**



수타사 경내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의 상이 남방 증장천(增長天), 북방 다문천(多聞天), 서방 광목천(廣目天)이 있다. 이들은 험상궂은 얼굴에 갑옷을 입고, 발 아래 여러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사천왕상은 나무 심에 새끼줄을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덧붙여 형태를 만든 뒤 채색한 작품이다. 각 상의 크기는 3m를 넘으며, 1676년(숙종 2)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 유물로는 동방지국 천왕의 배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권 17, 18과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이 있다.

**흥회루 -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효종 9년(1658)에 건립된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누각으로, 조선 후기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주심포식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을 가진 이 건물은 대적광전과 마주하며 개방된 구조로, 설법 강당이나 대형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단층 구조로, 일반적인 사찰의 누각과는 달리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특이한 진입방식을 갖추고 있다. 기둥은 원목을 꺾질만 벗겨 마감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치밀하게 가공된 기둥을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목조관음보살좌상 -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수타사 원통보전의 본전으로, 영조 34년에 조성되었다. 조성 당시에는 수타사 옥수암에 봉안



되었으며, 현재는 본전 안에 모셔져 있다. 높이 46cm의 나무로 제작된 보살상은 봉황과 화염문으로 장식된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복장 내에서 사리 3개, 발원문, 후령통, 그리고 다수의 다리니 등이 발견되었다. 기년 명 불상으로, 조성 연대와 작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복장 유물이 함께 발견되어 한국 불교 조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동종 - [보물 제11-3호]**



1670년(현종 11)에 제작된 범종으로, 당시 가장 유명한 종 장인인 비구가 주도하여 조성한 작품이다. 종의 몸통 윗부분에는 구름 위에 서서 양손으로 연꽃 가지를 쥐고 있는 4구의 보살 입상이 새겨져 있으며, 종을 만든 시기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에는 4개의 화려한 불꽃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어 독특한 미적 특징을 지닌다. 이 종은 일반적인 범종과 달리 몸통과 고리를 따로 제작하여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제작 기법이다. 제작 시기와 참여자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존 상태도 거의 완벽하며, 제작 방법이 독특하여 조선시대 중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인물 탐방 (1)

# 치매 어머니와 함께 귀향한 50대 이학박사 이야기 (남면 유목정리)



〈홍낙기 대표와 어머니〉

홍천으로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연과 이유를 품고 자리를 잡는다. 그중 오늘 소개할 사람은 50대의 이학박사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향하여 라온터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홍낙기 대표다. 홍 대표는 부모님의 돌봄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며, 농업을 통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 자 :** 귀농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홍낙기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 환경연구원 이학박사 연구원이었고 대기관리정보 전공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기 자 :** 홍천으로 귀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홍낙기 :** 첫째로는 어머니가 치매 신데 돌볼 사람이 없는 데다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둘째로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니다.

**기 자 :** 귀향 후 어머니의 치매는 좀 나아지셨나요?

**홍낙기 :** 2015년에 어머니가 익숙한 마을에서 살면 정서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을 중심으로 4가구의 친척과 많은 이웃이 살고 있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치

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귀농 첫해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농장까지 다니실 수 있었지만, 치매가 악화하면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친척분들, 그리고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같이 돌볼 수 있었던 구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향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다 2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기 자 :** 귀향 후 대표님의 건강은 괜찮아졌나요?

**홍낙기 :**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저는 편두통과 만성 위염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편두통이 심할 때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고, 계절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귀농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10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 자 :** 귀농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홍낙기 :** 현재 딸기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

양원에 모시지 않고 직접 돌볼 수 있었던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인분들도 귀농이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해 주십니다.

한동안 귀농 붐이 일면서 다양한 이유로 홍천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라온터 딸기농장 홍낙기 대표님은, 홍천으로 귀향한 후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농사를 지으며 여러 도전과 시도를 거쳐 건강을 되찾은 그는, 귀농이 단순한 직업 변화나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자립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홍천에서의 귀농은 그에게 단순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홍낙기 대표의 이야기는 홍천에서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귀농 여정에 큰 응원을 보낸다.

정미진 기자  
(pearlchong@naver.com)

**인물 탐방 (2)**

# 홍천군 북방면 김화순 분회장과 20개 경로당 활동



〈북방면 김화순 분회장〉



〈북방분회 노인자원봉사단〉

11월 26일(화), 북방면 노인 분회 사무실에서 김화순 분회장과 김주용 사무장을 만나 북방면 20개 경로당의 활동 상황을 취재하게 되었다.

이번 취재는 북방면 경로당의 디지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을 공유하며, 자원봉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 북방면 김화순 분회장

북방면 노인 분회는 초대 박승만 분회장을 시작으로 4대 심우홍 분회장이 경로당 20개를 관리해 왔으며, 현재 김화순 분회장이 제5대 분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화순 분회장은 20개 경로당 회장 및 총무와 함께 매달 월례 회의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디지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김화순 분회장은 스마트폰 강사진을 섭외해 20개 경로당 각 회장과 총무에게 스마트폰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화상통화나 사진을 찍고 전송하는 등의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디지털 소외 세대인 어르신들을 위한 김화순 분회장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의 하나로, 디지털 역량을 높이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경로당에서는 요가, 건강 체조, 치매 교육,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약 35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홍천군지회에서 진행되는 한궁 대회에서는 작년 2023년 우승, 올해 2024년 준우승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많은 어르신이 한궁에 몰두하여 연습하고 있다고 한다.

### 북방면 어르신의 장수 비결

걷기 운동과 체조로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비결로 여겨진다. 북방면은 가까운 곳에 테마파크와 수목원 등의 잘 마련되어 있는 주위 환경 덕분에 어르신

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북방면 굴지리 경로당의 염만순 어르신(96세)과 신순덕 어르신(97세)은 원로 장수 부부로서 모든 회원의 인정을 받고 북방면 분회의 장수상을 받았다. 경로당에 매일 나오시고 주변 논밭에서 일하실 정도로 정정하며 두 어르신은 ‘마음을 비우고 남을 배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 자원봉사와 환경 개선

김화순 분회장은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20개 경로당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 청소와 관리에 신경 쓰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노년기 삶

# 65세부터 74세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게 될까? 장년(長年)?

오랫동안 우리는 노인의 시작을 65세로 정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 이 정도 인구수라면 충분히 사회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허덕이느라 그럴 여력이 없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에 달하며,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80세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형편이다.

###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쏘아 올린 대한노인회

지난 10월 21일, 대한노인회 19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종근(83) 회장은 취임식에서 “노인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부족해진다.”라며, “65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조심스러워할 만한 문제였지만, 대한노인회장의 취임사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 측은 “노인회가 제기한 문제라면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청장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세대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잡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 기초연금을 받고, 폐지 줍고,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 자식처럼 여겨지는 젊은 세대에게 잔소리 들으며 경비원,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누구에게는 푼돈 일지 몰라도 나를 지탱해 주는 귀한 버팀목이 아닌가!

S 씨(67세, 경기도)는 57세에 원치 않는 권고 사직을 당했다. 남은 것은 소형 아파트와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뿐이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돈도 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게다가 오래전에 혼자 되신 80세가 넘으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혼자 별이로는 도저히 안 돼서 아내도 평생 처음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계약만으로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채용 조건도 바뀌게 된 것이다. 직장에서 '65세 이상은 퇴직'이라는 방침이 도입되었고, 옆친 데 덮친 격



〈눈 치우느라 땀 흘리는 아파트 경비원 - 이 일마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으로 다른 곳에도 이 정책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S 씨는 자신이 노인도 아닌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65세에서 74세는 더 이상 노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장년(長年) 세대라 해야 할까?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선행조건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많지만, 이는 노인 세대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만의 책임도 아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적어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

장이 먼저 보장된 후에 논의될 문제이다. 고용연장 제도는 노동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노인 세대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고 단지 '일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현실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65~74세는 부모가 끌어당기고 자식이 매달려서 온몸이 찢어질 지경에 놓인 세대가 아닌가? 적어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고용 환경을 비롯한 선행 조건이 갖춰졌을 때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욕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이 많은지 갖가지 욕을 만들어 내뱉으며 산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점점 더 거칠고 상스러운 욕설이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앞으로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불안한 생각마저 든다.

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말로 싸우는 무기이다. 법이나 힘

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풀기 위해 상대방을 누르려는 욕설은 공격적이다. 그러나 욕에도 품위가 있고 그 어원이 있어야 한다.

옛날 사람들이 흔히 쓰던 욕에는 그 나름에 어원이 있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성을 갖추고 평등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리고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데 이를 어기고 자기 본능대로 타인을 해코지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인간 이하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라질 놈’이라는 욕을 사용했는데, 이는 범인이나 죄인을 압송할 때 사용된 붉은 끈인 ‘오라’

에서 유래됐다. 범인을 체포할 때 손목을 묶어 구속하며,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표현은 현대의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수갑과 비슷한 개념이며, ‘오라질’은 ‘오라에 묶여 갈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연행된 범인이 죄인이

지은 자를 토막 내어 죽이는 형벌을 뜻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극악한 죄를 지은 자를 향한 욕으로 쓰였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다. 법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경우가 많다.

때로는 법을 피해 큰소리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역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착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착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한다. 법이 불완전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법의 평등성을 더욱더 고민해야 한다.

되어 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심문 방법이나 형벌명이 욕으로 사용되었다. ‘주리를 틀 놈’은 사지에 각목을 넣고 비트는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던 방법에서 유래한 욕이다. ‘육시할 놈’은 죽은 사람을 다시 처형하는 극형을 의미하며, ‘능지처참할 놈’은 대역죄를

## 오라질 사람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며,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며, 홍천군의 경우는 33%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지난 한 해는 경사와 고난이 교

차하는 시간이었으나, 특별히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은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또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소 인원이 참석하면서도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

히 배드민턴 여자 개인 부문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양궁에서는 임시현 선수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펜싱, 태권도 등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현재 세계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과거 유럽

과 일본에서 고령화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가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노

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희망찬 노후를 보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육체적 나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나이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에 70%를 곱한 수치가 ‘정신적 나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제 나이에 비해 훨씬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또한, 노인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취미 생활과 여가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을사년 새해에는 노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을사년 새해를 맞으며